



##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과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채플과 신앙고백의 수준을 넘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동대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 최용준 교수가 코너스톤대학 리 오스트랜드 학장을 만났다.

🗣 인터뷰어: 최용준 (한동대 교수, 한동대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

**최용준:** 소개된 내용 외에 세계관과 학문, 신앙의 통합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요.

**릭 오스트랜드:** 저는 노트르담대학에서 다양한 독회(reading) 모임에 참석하면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혼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0년대에는 아더 홈즈의 책을, 80년대에는 칼빈대에서 나온 카이퍼 관련 책들과 'Through the eyes of faith' 시리즈, CCCU에서 나온 통합 관련 시리즈 등을 읽으면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릭 오스트랜드:** 미국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코너스톤대학의 학장이지 교수가, 행정가이다. 또한 그는 3권의 책을 집필한 자서로도 학문적 능력은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리 오스트랜드는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에서 신학사를, 엔아버에 있는 미시간대학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무디 성경 학교에서 평범한 신앙인으로 신앙을 확신하게 되긴 그는 미시간대학에서 수많은 무신론자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리는 이 기간이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검증하는 도전의 시간이자 기독교인으로서는 고통이 배어 있는 기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그 후 인디애나 주 노트담대학의 지원으로 도전의 시간이자 기독교인으로서는 고통이 배어 있어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미시간 교수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하나 된 삶의 모습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다져진 신앙과 미시간대학에서 뒤는 학문이 통합되는 경험을 한다. 리는 독일 뷔르부르그(Wuerzburg)대학교의 콜브라이트 연구원으로 잠시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칸사스 주 실로암스쿨링스의 존보라운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이 대학 학장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핵심 카리큘럼을 수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신앙생활을 위한 새로운 세미나와 오리엔테이션 및 여름 독서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고, 새로운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신임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및 신앙의 통합 교육을 위해 코스백으로 사용하던 것을 조금 더 수정·보완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 그의 최근 저서인 Why College Matters to God: Academic Faithfulness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 (Abletine: Athlete Christian University Press, 2009)이다. 최근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은 다른 기독교 대학 신임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코너스톤대학의 학장으로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매년 두 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신앙뿐 아니라 그 신앙을 함양하고 통합하는 세계관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 그는 이런 자들을 통해 코너스톤이 기독교 대학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로네(Lorne)와의 사이에 네 명의 자녀(Ryan, Tyler, Rachael, Anna)를 두고 있으며, 사이를 매니어로 일 밖에 수천 마일을 달린다고 한다.

**최용준:** 코너스톤대학의 학장으로서의

**주요 업무 내용을 여쭙봐도 될까요?**

**릭 오스트랜드:** 70%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각종 회의이고, 30%는 더 큰 정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학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교무 행정이 학교의 비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용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신임 교수 채용 및 그 훈련 과정이 궁금한데요.

**릭 오스트랜드:** 신임 교수 채용 시에는 먼저 리서치 커미티(research committee)를 구성하고 모든 과정을 매우 투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기존 교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center for excellence in learning & teaching을 설립하고 승진 심사는 제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용준:**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릭 오스트랜드:** 물론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신임 교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점심을 함께하며 세계관과 학문, 신앙의 통합, 기독교적 교육 등 실제적인 주제들을 두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체 교수들을 위해서는 매년 가을에 네 차례, 봄 학기에는 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틀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준:** 대단히 훌륭하고 멋진 아이디어인 듯 합니다.

**릭 오스트랜드:** 기독교 역사학자로서 또 학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수들의 신앙과 학문이 삶에서 통하는 모습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용준:** 그럼데 그런 교수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릭 오스트랜드:** 분야별로 다릅니다.

기령 역사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경제 분야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최용준:** 다른 교직원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릭 오스트랜드:** 코너스톤에서는 교수들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도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교수들보다 기숙사 정소부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코치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해서 채용 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용준:** 학생들은 어떤가요, 모두 크리스천인지 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릭 오스트랜드:** 코너스톤은 모든 입학생들에게 신앙고백을 요구합니다. 미국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존브라운대학과 같이 열린 대학의 경우 비기독교인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너스톤은 재지도를 훈련하는 대학이므로 기독교인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신입생들의 신앙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신앙고백과 간증을 요구하고 있어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코너스톤은 채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입주일에 세 번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며 YEM(엔에이치) 캠퍼스 개발 및 ETR(엔에이치) 재건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웨스턴사터 대학의 내셔널 임스테트만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 아칸소 크리스티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뮌헨대학교, 브루클린대학교, KANS(한국국제대학교)를 역임하였다. KOSTA, YWAM, CBMC, Deepora 2011 강사 및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